

## 朝鮮의 國家 創業과 經營-朝鮮王朝實錄에 근거한 鄭道傳의 정치사상의 재평가

###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Joseon Dynasty: Revisiting Jeong Do-jeon's Political Philosophy Based on the Royal Record of Joseon Dynasty

劉權鍾 YOO Kwon Jong\*

#### 요약문

정도전은 조선왕조 창업의 실질적 공헌자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공은 단지 개국한 것에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조선왕조가 이후 500 년간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논점이다. 기존의 한국 역사학계의 평가는 그를 왕조의 설계자로 간주하면서, 주로 경제, 정치, 법 제도의 제공에 한정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실질적 공헌은 유교국가로서 조선왕조가 자신의 사회를 지속해서 성공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데에 있다고 보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 즉 수도 공간과 건축의 유교적 배치와 명명, 불교적 의례를 폐지하고 유교적 의례를 대체한 사실, 불교이념의 배제와 유교이념의 시행 등의 의미를 논한 것이 이 글의 핵심이다.

**핵심어:** 정도전, 조선왕조 창업, 유교적 기반, 사회의 재생산, 도시공간의 유교적 배치와 명명, 유교의례, 유교이념

#### Abstract

Jeong Do-jeon is the most substantial contribut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oseon Dynasty. Most present Korean historians commonly regard him as Designer of the Dynasty and have discussed his contribution to establish the system of law, economy, and politics. However, his contribution is not limited in the establishment. This paper discusses his substantial contribution in supplying the basis of Confucian civilization for the Dynasty's duration for 500 years, abolishing Buddhist rituals and providing Confucian ones, organizing the capital city and naming buildings and districts of the city according to Confucian humanities, excluding Buddhism from people's routine lives as well as official or royal ceremonies, etc.

---

\*劉權鍾, 中央大 哲學科 教授. YOO Kwon Jong, Chung-Ang University, Korea. ykj111@cau.ac.kr

**Keywords:** Jeong Do-jeon, Joseon Dynasty, Confucianism, reproduction of Confucian society, rituals, capital city

## 서론

實錄을 통해서 보는 鄭道傳(1342~1398), 과연 어떠한 면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조선이라는 신왕조의 創業과 관련된 그의 업적과 그 의의에 시선을 보내고자 한다. 정도전의 업적에 대하여 이미 한국의 학계에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일된 견해가 조성된 상태이다. 그 통일된 견해란 ‘왕조의 설계자’로서 정도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내린 정도전 업적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행적과 저술에 나타난 경제, 정치, 철학(종교)의 사상들에 관한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중심이 된 정도전 사상의 연구는 사료에 입각한 실증적 태도를 충실하게 취하고 있지만, 연구 항목 선정 자체가 주류 사회과학이 중시하는 영역들(정치 경제 사회 철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인간의 삶을 다루거나 장악하는 기구이며, 때문에 국가의 창업과 경영에 관한 진단과 평가는 더 속깊은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으면 적절한 결론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그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안목을 갖춘 유학사상가로서 이론 뿐 아니라 실천(經世)에도 뛰어난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그의 업적이 조선왕조의 500 년 넘는 긴 세월에 걸친 경영과 지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어떠한 단서를 제공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정도전의 업적에 초점을 맞춘 공공철학의 논의를 개진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정도전의 조선왕국의 창업과 경영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전제해야 할 사안 두 가지를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는 실록의 기사 읽기와 관련된 것이다. 1342 년에 태어나서 1398 년에 생을 마감한 鄭道傳의 행적은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이하 實錄이라고 칭함)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實錄의 기사는 일단 1392 년 태조 즉위년부터 그의 沒年인 1398 년까지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도 그를 회상하는 기록은 각 王代에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실록의

기사들은 鄭道傳의 功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거나 일종의 最小의 기술로 나아갈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를 간신이나 비굴한 인물로 묘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다가 正祖(在位 1776~1800)가 그의 문집 『三峰集』을 간행해주고, 高宗(재위 1863~1907)에 이르러 비로소 그에게 儒宗功宗이라는 평가를 다시 내린다. 이는 정도전에 대한 왕조(왕실)의 입장에 180도 전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전의 기사들은 왕조의 입장에 의해서 사실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太宗(李芳遠, 1367~1422)의 정도전을 斷罪하는 시각이 實錄의 작성에 깊이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졌다가 英正祖代에 회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여기서도 왕조말기의 평가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도전의 업적에 관해 논의한다. 둘째는 鄭道傳의 사상과 실천에 관한 자료들을 근거로 公共哲學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다. 공공철학이란 公과 私를 이어주고, 公共 共勵 開新을 지향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하나의 동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단 방법에 관한 질문이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태도로 정도전을 성찰해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정도전의 행적과 그 업적을 자료로 삼아서 공공철학을 한다고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방법이나 태도는 무엇일까?

오늘 이 자리는 정도전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음미를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정도전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의 사상과 행적을 자료로 삼아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철학은 무슨 논의를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발표자는 한국인으로서 정도전의 사상과 행적 그리고 그 업적과 의의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 계신 일본의 학자나 전문가 혹은 시민들과 어떠한 공공철학의 맥락을 형성하여 가야 하는가? 따라서 여기에는 한국인만의 시각이나 관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인 혹은 동아시아인의 공동의 시각과 관심사에 입각하여 정도전을 음미하고 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정도전의 업적에 담긴 의의와 가능성을 발굴하여 동아시아인의 공동의 행복, 현대 인류의 安全保障, 혹은 人間開發 과도 같은 현안들의 해법과 관련된 탐색을 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 말의 한반도에서의 국가 창업과 21세기 지구촌 시대의 세계시민의 삶이 만날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는 것이 이 글의 과제이다.

## 정도전의 행적과 조선의 창업

朝鮮王朝의 창업은 단지 李成桂(太祖, 1335~1408) 혼자만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고려 말에 元으로부터 수용한 性理學을 익힌 많은 신진 儒士들의 개혁 의지, 武將으로서 李成桂의 인품과 통솔력, 양자의 개혁과 권력에의 의욕과 그것의 실천, 개혁 반대세력들의 失機 등등, 수많은 因素들의 複雜系的 작용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개국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고려 왕조를 폐하고 신왕조를 건립한다는 구상을 하고 그 과정의 설계와 이행을 담당했던 인물은 정도전이라는 데에 한국의 학계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도전 본인도 開國할 즈음에 “漢高祖가 張子房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곧 한 고조를 쓴 것이다.”라고 왕왕 취중언급이 있었다고 한다.<sup>1</sup> 그는 태조의 위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謀議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결국은 上等의 공신이 되었다고 실록의 卒記는 평가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태조는 경복궁의 낙성을 기념하는 연회에서 정도전에게 儒宗功宗이라고 大書特書하여 주었다. 이러한 기록들로만 미루어보더라도 고려 말부터 태조 7년에 이르는 기간에서 왕조의 교체와 새 왕조의 창업의 실질적 주역은 정도전이었음을 시사한다. 정도전이 국가 창업의 주역이 되기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 국내의 상황은 元나라의 속박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恭愍王代(在位, 1351~1374)에 추진했던 개혁들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親元派의 재득세로 인한 정국의 혼란함, 紅巾賊과 倭寇의 빈번한 침탈로 인한 불안감과 위기감, 私田의 賜與 남발로 인한 국가 租稅의 감소와 (관리들의) 농민에 대한 가혹한 수탈, 自淨능력을 상실한 불교 승단과 사찰의 사회·경제·윤리의 폐해 등으로서 누구라도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국제적 상황으로는 元의 멸망과 明의 건국(1368년)으로 인한 국제적 질서의 재편과정과 遼東征伐의 시도, 明에 대한 事大, 한반도에 수시로 나타나서 노략과 살상을 일삼는 倭寇의 방어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 전후의 그의 동향은 그의 立志를 잘 보여준다. 그것을 韓永愚 교수의 글로부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3</sup> 그의 10세 때인 1351년 恭愍王이 즉위하여 反元親明의 개혁정치를 펴기 시작하였고 특히 成均館의 유교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이런

<sup>1</sup> 『朝鮮王朝實錄』 태조 014 07/08/26(기사) 鄭道傳 卒記.

<sup>2</sup> 上同.

<sup>3</sup>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분위기속에서 정도전은 1360 년 成均試에 합격하고, 1362 년 進士試에 합격하여 仕宦을 시작한다. 1366 년 父母의 잇단 喪을 당하여 3 년 居喪기간에 鄭夢周가 전해준 『孟子』를 정독하였다. 1370 년 공민왕에 의하여 重營된 成均館에 모여든 李穡, 鄭夢周, 金九容, 朴尙衷, 李崇仁, 朴宜中 등과 더불어 정도전은 성리학적 신념과 경학적 소양을 넓혀간다. 1371 년 太常博士에 특진되었고, 禮儀正郎으로서 成均博士와 太常博士를 겸임하게 된다. 1374 년 공민왕이 시해되고 禡王이 즉위하면서 공민왕의 개혁정치가 중단되고 다시 권문세족의 권력농단과 土地兼併이 극심하여 농민의 생활은 난맥상을 보였고, 동시에 倭寇가 기승을 부려서 전국이 노략과 살상의 피해를 입었다. 1375 년(우왕 원년) 北元의 사신 접대의 명을 받았으나 강경하게 거부한 까닭에 親元派 權臣들의 분노를 사서 全羅道 羅州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귀양살이 기간에 「心問天答」, 「消災洞記」, 「答田父」, 「錦南野人」 등을 저술한다. 「心問天答」은 유교의 天理에 대한 신념, 그 외의 글들은 儒者들의 허위와 농민들의 진정성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묘사한 것이다. 1383 년과 1384 년 두 차례에 걸쳐서 咸州 軍幕으로 가서 李成桂를 만난다. 유배가 풀린 뒤 벼슬을 다시 받은 정도전은 명나라에 사신을 다녀오고, 京畿道 南陽府使를 역임하고(1387 년), 이성계의 후원으로 成均大司成에 오른다. 1388 년 이성계의 威化島 回軍 뒤 실권을 장악하고 廢假立眞(가짜 혈통으로 왕위에 오른 왕을 폐위하고 진짜 혈통을 왕위에 세운다)의 명분으로 禡王과 昌王을 폐위하고, 計民授田의 원칙으로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科田法을 실시한다. (1391 년 5 월) 이성계 일파의 恭讓王 옹립 후 정도전은 개혁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데, 添設職의 혁파, 인사정책의 혁신을 도모한다. 1391 년에는 三軍都摠制府가 신설되자 이성계는 都摠制使가 되고 정도전은 右軍摠制使가 되어 고려의 兵權을 장악한다. 정도전은 恭讓王의 飯僧을 비판하고, 왕이 演福寺 塔殿을 짓기 위하여 경기도와 양광도의 백성들에게 나무 5 천주를 바치게 하자 백성들에게 미치는 해독을 맹렬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1391 년 9 월에 구세력으로부터 정도전은 탄핵을 받고 관직을 모두 빼앗기고 봉화로 귀양을 간다. 1392 년 이성계가 海州에서 사냥중 낙마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생기자 鄭夢周는 정도전 등 이성계의 핵심세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만 李芳遠이 鄭夢周를 살해함으로써 국면은 전환되었고, 7 월 17 일 鄭道傳, 趙浚, 南閔 등이 주동이 되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함으로써 易姓革命이 시작된

것이다. 정도전은 태조 즉위 직후 便民事目 17 조를 담은 王의 敎書를 작성한다. 그는 태조 3년(1394년) 일원적인 統帥체계를 갖춘 公兵을 만들기 위하여 병제개혁안을 上疏하고, 『朝鮮經國典』을 진찬하고, 新都宮闕造成 都監이 설치되자(9월) 王命으로 신도건설사업을 정도전이 주관하였다. 漢陽의 종묘, 사직, 궁궐, 관아, 市廛, 도로의 터를 정함으로써 바로 遷都(10월)를 가능하게 하였다. 1395년에는 『高麗史』, 『經濟文鑑』을 편찬하고, 『詩經』, 『書經』 등의 문구를 취하여 宮闕 殿閣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듬해 1월부터 도성의 축조사업을 하게 되고, 都城門의 이름을 붙인다. 이 명칭은 五行과 五德을 상징하는 것이다. 1396년에는 한성부의 행정구획을 정리하면서 전체 5部 52坊의 이름을 짓는다. 이 명칭 역시 유교의 덕목을 坊名으로 고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요동정벌과 관련하여 군사훈련을 강화하였고, 1398년에는 「新都歌」와 『佛氏雜辨』을 짓는다. 그리고 李芳遠에 의하여 살해된다. 정도전이 李芳遠에게 피살되면서부터 정도전에 대한 역사기록은 그에게 부정적인 쪽으로 기록되는 흐름을 타게 된다. 그러나 조선왕조 후기에 들어와 그는 명예회복을 하게 된다. 한영우 교수에 의하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한 뒤 정도전이 장악한 직책은 그가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실질적 주역이었음을 시사한다. 1품에 해당하는 崇祿大夫로서 門下侍 郎 贊成事 (최고행정관청의 2인자), 同判都評議使司事 (최고정책결정기구의 수장), 判戶曹事 (국가경제총괄), 判尙瑞司事 (인사행정총괄), 寶文閣大學士(文翰의 책임자), 知經筵藝文春秋館事(왕의 교육과 역사편찬 책임), 義興親軍衛節制使 (이성계의 친군위의 두 번째 책임자), 奉化伯이라는 작위 등이다. 이러한 직책과 작위는 정책결정, 관료인사, 국가재정, 군사지휘권, 왕의 교육과 왕의 敎書 작성, 역사편찬 등 국가경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그가 두루 관여하였음을 의미한다.<sup>4</sup>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다음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조선왕조 창업의 실질적 주역이었으나 李芳遠(후일 太宗)의 증오를 받아 살해되면서 간신과 역신으로 지위와 명예가 하락했으며 그러한 상태가 조선시대 내내 지속되다가 고종대에 이르러 명예회복을 한 것이다. 그의 명예상실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시간은 거의 500년이 되는 셈인데, 역사는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결국 그의 진실은 밝혀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儒宗功宗을 하사한 이유와 그 의미이다.

<sup>4</sup> 위의 책, 52 쪽.

## 鄭道傳과 儒宗功宗

태조가 鄭道傳에게 하사한 儒宗功宗이라는 평가는 과연 그의 어떠한 면을 인정한다는 것일까? 그는 조선의 왕궁인 景福宮을 작명하였고, 그 궁이 낙성되어서 태조와 공신들이 연회를 할 때에 태조로부터 이를 받았다. 그 뒤 500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景福宮을 重建하여 낙성한 뒤에 高宗(在位, 1863~1907)은 정도전에게 致祭하도록 명하였는데(1872) 그 치제문에 儒宗功宗의 평가를 다시 올리고 있다. 왕조의 중간에 그에 대한 혐오와 불신 내지 비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조선왕조는 결국 그의 공을 인정하고 명예를 재차 부여한 셈이다. 儒士로도 으뜸이고 功도 으뜸이라는 의미의 儒宗功宗이란 유교국가에서는 최상의 평가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고종은 그에게 文憲이라는 시호를 부여했다. (1871 년) 그렇다면 그의 생전 업적들은 조선왕조의 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또 조선 왕조는 그것을 어떠한 의미로 수용한 것일까? 그리고 그의 업적은 현재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가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 정도전 연구로 가장 권위가 있는 학자인 한영우 교수는 사회 정치사상, 경제사상, 철학 윤리사상으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또 그의 사상사적 위상을 평가하고 있다.<sup>5</sup> 한교수가 주목한 영역은 정도전 개인의 형식적 지식(explicit knowledge)에 관한 것 혹은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의 국가가 창업 이후 지속성을 갖는 이유를 형식적 지식이나 합리성 영역의 일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정도전이 조선왕조의 지속에 공헌했던 실질적인 내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고종이 정도전에게 부여한 儒宗功宗의 존호와 文憲이라는 시호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조선 왕조 창업에 관련된 정도전의 실질적 공헌에 대한 시사를 함축한다. 정도전의 실질적 공헌은 어떠한 것인가? 특히 조선 말기에 정도전에 관한 그러한 재평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밝혀볼 수 있는 단서가 許傳(1797~1886)이 高宗의 어명을 받아 지은 致祭文에 잘 드러나 있다.<sup>6</sup> 이 치제문과 실록의 기사를 종합하여 보면 정도전의 功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제도 뿐 아니라 文化의 틀을 갖춘 것이다. 치제문에서는 정도전이 국가 운영에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 禮樂과 政教, 典章과 法度の 經紀를 갖추었으며

<sup>5</sup> 韓永愚 著, 『鄭道傳思想의 研究』, 서울대출판부, 1983 년 개정판.

<sup>6</sup> 許傳, 『性齋先生文集續編』 卷之五. 이 치제문은 景福宮重建 뒤 고종이 궁으로 移御하면서 특명을 내려서 짓게 된 것이다.

거기에 그의 커다란 지혜가 담긴 것으로 숭앙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禮樂과 政教, 典章과 法度の 經紀가 곧 전체적으로는 문화의 틀이다. 그런 문화의 틀로 인해서 조선 왕조가 오랜 세월을 지속할 수 있었음을 칭송하는 것이다.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經濟文鑑別集』 등의 進撰,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李茂를 위하여 써준 『監司要約』, 이성계의 공로를 찬양하는 「文德曲」, 「夢金尺」, 「受寶錄」, 「納氏曲」, 「整東方曲」, 「窮獸奔曲」, 그리고 한양 건설을 찬양하는 「新都歌」 등의 樂詞 제작 등은 모두 禮樂의 틀을 갖추는 작업에 해당한다. 정도전은 왜 이런 예제(법제)와 樂詞를 제정하였는가? 그것은 조선의 창업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인가? 둘째는 정도전이 도성과 궁궐에 ‘意味의 空間’을 구성한 사실이다. 정도전은 新都宮闕造成都監이 설치되자 漢陽에 내려가 궁궐, 관아, 종묘, 사직, 시전, 도로의 터 등 한양의 도시설계도를 만들어 바쳤고(태조 3년) 그 도성의 팔대문과 궁궐의 건물 각각에 명명을 하였으며,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5部 52坊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의 명칭을 제정하였다.(태조 5년) 그는 판삼사사로서 인왕산 백악산 등을 직접답사하고 도성의 성터를 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漢陽都城을 治國의 중심무대로 재구성하고자 유교의 象徵的 記號로써 ‘意味의 空間’을 구성하고 연출한 것이다. 許傳은 이를 군왕의 정치가 진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으로 간주하였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는 유교의 道에 입각한 교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상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 준 점이다. 정도전은 知貢擧가 되어서 과거의 제도에 初場에 講經하는 법을 실시함으로써 유교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佛氏雜辨』, 『心氣理篇』과 같은 排佛書의 저술, 성균관 제조로서 유생들을 위한 經史 강론, 그밖에도 유교를 정치와 교화에 시행하도록 노력한 점이 그의 업적이다. 이상의 내용은 조선왕조의 입장에서 보는 정도전의 훌륭한 업적인데 무엇보다도 유교를 근본 원리로 해서 禮樂의 문화와 法制를 갖추고 공간적 의미를 구성하고 또 백성을 유교로 교화하는 것이 그의 기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지속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치제문은 조선 왕조의 개창초부터 말기까지 儒敎的 理念과 原理에 따른 통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 그의 가장 큰 공로라 인정하는 것이다. 정도전에 대해 고종 시대에도 ‘儒宗功宗’이라는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면에서의 업적이 융합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유교국가로서의 지속성이 유지되었음을 뜻한다. 현대의 역사가가 내리는 ‘(조선)왕조의 설계자’라는 평가는 그의 업적에서 유교에 관한 내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쪽이라면 조선 왕조에서는 그것을 가장 큰 것으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현대의 역사가들은 정도전의 업적이나 사상으로부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것 혹은 현대 학문의 형식에 적합한 요소만을 추출해서 그의 사상을 재구성하고 유교적 요소 혹은 유학을 신봉하는 당사자들이 중시했을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거나 최소 내용만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그의 사상이나 업적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실질을 빠트리고 있다는 느낌, 뭔가 허전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의 유학자나 조정에서의 평가는 그의 업적을 특히 유학의 공로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정도전의 업적의 특성

정도전의 창업과 국가 경영의 방법에는 어떠한 특징적 내용이 있는 것일까? 정도전이 관여한 시기는 조선 초기 7년간에 불과하지만, 500년 넘게 이어진 왕조의 경영에 그가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儒宗功宗 이라는 칭호는 단지 명예만이 아니라면 그것이 가리키는 실질을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미 선행 연구들이 정도전의 사상이나 행적에 대해서는 살살이 밝혀놓았기 때문에 더 추가할 새로운 사실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 기여와 그 공적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으로써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료들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정도전의 업적에 대해서 기존의 이해를 넘어서서 모험적인 해석을 시도해보자면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舊脈絡(前王朝)의 斷絶과 新脈絡의 定礎이다. 歷史의 전개과정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맥락을 형성해가는 것이다. 이 맥락의 형성은 한 국가면 국가, 사회면 사회 전체가 자기의 體系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즉 역사는 국가(혹은 사회)의 체계가 自己生産(Autopoiesis)을 반복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재생산 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간섭하여 새롭고 건전한 맥락을 형성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정도전의 위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고려왕조의 폐습을 과감하게 단절하면서 한반도에서의 國家 운영과 전국민의 생활 자체를 쇄신한 점에 있다. 특히 『佛氏雜辨』과 『心氣理篇』은 『朝鮮經國典』, 『經濟文鑑』, 그리고 유교적 공간의 구성 등과 상호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새로운 유교 국가 체계의 형성과 정착에 커다란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가 함께 治國의 理念이자 政治術로 공존하던 고려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을 유교가 절대적 중심을 차지하는 맥락으로 환골탈태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로 인하여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자체적인 맥락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그 체계를 재생산하면서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어왔던 것이다. 정도전은 중국 宋代에 발전하여 元을 거쳐 고려말에 들어온 性理學의 신봉자이며, 성리학을 “옛사람의 덕을 밝히고 백성을 쇄신하는 참된 학문”(古人明德新 民之實學)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맥락이란 위로는 군주로부터 아래로는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삶의 방식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儀禮的 裝置와 儀禮的 實踐을 儒敎에 입각하여 체계화하였다. 儀禮的 裝置와 儀禮的 實踐은 서로 결합이 되어서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의 삶 자체를 일정한 유형으로 반복하도록 해주는 것이다.<sup>7</sup> 그것은 구성원들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기반이다. 의례적 장치와 의례적 실천이 안정된 사회생활과 사회의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구성원들의 새로운 形式知(explicit knowledge)뿐 아니라 暗黙知(tacit knowledge)까지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자연적 신체를 사회적 신체로 전환하는 장치이기도 하다.<sup>8</sup> 한 국가의 의례적 장치와 의례적 실천은 매우 복잡한 구성요소를 지닌다. 이와 관련된 정도전의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혁명을 통해서 등극한 태조의 卽位敎書(便民事目 17條)를 통해서 과거 정치와 행정의 폐단을 시정한다는 선정의 약속을 행하였고, 곧 이어 태조의 덕을 칭송하는 樂詞를 제작하여서 神聖王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왕조마다 행했던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신왕조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에 불가결한 것이기

<sup>7</sup> 今村仁司+今村眞介 著, 『儀禮のオントロギー: 人間社會を再生産するもの』, 講談社, 2007年., 제1장 참조.

<sup>8</sup> 위의 책, 52쪽.

때문이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의례적 장치의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漢陽의 都城과 宮闕에 意味의 空間을 구성한 일이다. 미셸 푸코의 말대로 “공간은 모든 공동체적 삶에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권력 행사에도 근본적인 것”이다.<sup>9</sup> 고려의 도성인 개경에는 도성의 바깥에 두었던 宗廟와 社稷을 한양의 도성 안쪽 왕궁의 좌우에 배치한 것, 궁궐의 이름을 景福이라 짓고 康寧殿, 延生殿, 慶成殿, 思政殿, 勤政殿, 勤政門, 隆文樓, 隆武樓, 正門(후에 光化門) 등의 殿 門樓를 명명한 것, 都城의 四大門(北: 昭智門-肅靖門, 南: 崇禮門, 東: 興仁之門, 西: 敦義門, 中: 普信閣)과 四小門(西北: 彰義門, 東北: 惠化門, 東南: 光熙門, 西南: 昭義門)의 명명, 宮闕門(北: 神武門, 南: 光化門, 東: 建春文, 西: 迎秋門)의 명명을 상호 조응하게 하고 유교의 세계관을 담은 五行(水 火 木 金 土)과 五德(仁 義 禮 智 信)에 상응하는 공간구조를 취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 漢城府의 5 部 52 坊의 명칭을 지은 것도 그것과 상호 관련되어서 중요성을 지닌다.(동부 12 방: 燕喜, 崇教, 泉達, 彰善, 建德, 德成, 瑞雲, 蓮花, 崇信, 仁昌, 觀德, 興盛, 남부 11 방: 廣通, 好賢, 明禮, 大平, 熏陶, 誠明, 樂善, 貞心, 明哲, 誠身, 禮成, 서부 11 방: 永堅, 仁達, 積善, 餘慶, 仁智, 皇華, 聚賢, 養生, 神化, 盤石, 盤松, 북부 10 방: 廣化, 陽德, 嘉會, 安國, 觀光, 鎮定, 順化, 明通, 俊秀, 義通, 중부 8 방: 貞善, 慶幸, 寬仁, 壽進, 澄清, 長通, 瑞麟, 堅平) 이와 더불어 중요성을 갖는 것은 『朝鮮經國典』과 같은 法典의 제정인데, 이는 국가의 통치와 행정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방식의 大綱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방식을 일상생활에 부과함으로써 모든 국가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의 유형을 쇄신하여 정착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중 禮典과 같은 것에는 冠婚喪祭의 禮를 유교식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규정이 있을 뿐 아니라 喪制에 관해서는 불교식 喪葬禮의 폐단을 불식하고 유교식 喪葬禮로 변화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人本主義에 입각한 統治性 (governmentality)의 확립이다. 통치성이란 미셸 푸코의 개념 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이 경우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여서 그들을 거기에 통합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세력들이 정초한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진하다. 그렇지만 조선이 유교만의 단일한

<sup>9</sup> 허경, 「미셸 푸코의 ‘헤테로피아’-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시인문학연구』 제 3 권 2 호, 240 쪽.

이념에 의존하는 통치 구조를 지닌다는 점은 前朝와 대비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점에서 정도전이 창입한 조선은 국가가 지니는 통치성의 근본을 인본주의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정의한 것이 특징이다. 그 점을 高麗와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高麗의 통치 이념의 立地는 太祖의 訓要十條에 보이듯이 불교와 도교를 유교와 함께 설정했다. 훈요십조에서는 道誡大師의 裨補說에 입각한 사탐의 건축을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地德’이라는 요소에 국가의 흥망의 조건이 걸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나, 한반도의 車峴以南 公州江以南의 지형은 本主에 背逆하는 형세이므로 그 지역의 인심도 그러할 것이라는 風水의 논리로서 그 지역 인물을 등용하지 말라고 훈시한다. 그리고 부처와 天, 名山, 大川, 龍神 등의 加護를 구하는 燃燈과 八關 등의 제사의식을 신성시함으로써 天地山川의 신비한 힘에 기대는 주술적 요소를 국가권력의 유지에 필수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유교적 爲民 정치의 중요성을 자각하라는 취지에서 왕은 『書經』의 「無逸」편을 읽어야 한다는 교훈을 더하였다. 이러한 고려초기의 정치권력은 그들의 의례적 장치에 地德과 神佛의 힘을 긴요한 요소로 끌어들임으로써 주술적 신앙에 의존하여 국토를 통치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창업을 주도한 정도전의 경우에는 그것에 비하여 매우 혁신적인 국가의 통치성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것은 儒敎의 合理性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사람의 도덕성에 입각하여 통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사고와 그것의 구현의 틀이 되는 법제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왕으로부터 관인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儒敎의 禮制를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가 저술한 『佛氏雜辨』과 『心氣理篇』 등의 排佛書들은 불교에 의존했던 일체의 사고와 실천을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유교의 논리로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끼친 영향은 당시의 유교식 예제의 법제화와 가례의 보급과 연결되어서 전체 구성원들의 의례적 실천의 유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朝鮮經國典』上「敎書」편에서 『書經』의 精一執中の說을 영원한 聖學의 연원이라고 보고, 그것에 입각하여 왕의 마음도 一貫性을 지니고 백성에게 敎書를 내려야 저절로 그 효과가 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正寶位」편에서는 임금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仁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임금은 ‘天地가 사물을 낳는 마음(天地生物之心)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삼고 不忍人之政을 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도전 이후 조선의 유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정치적 사안이다. 이는 주술과 신비한 힘에 기대어 국가적 주권을 수호할 것을 강조했던 고려 태조의 사고에 비해서 본다면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한 정도전의 정치적 입장이 진일보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도전의 구상은 국가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시사하는 면이 있다. 그것은 국가는 구성원에 대한 禮教的 道德的 管理를 그 통치의 본질로 삼는다는 점, 특히 통치의 주체인 왕은 더욱 修己에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 公共哲學的 論議

이상에서 살핀 내용은 정도전에 대한 현대의 우리들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서 그의 업적과 그 의의를 나름대로 헤아려 본 것이다. 정도전의 당시에는 아직 국민국가의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이며, 그에게는 왕국의 개념 속에서 인본주의에 입각한 통치성을 확립하는 것이 하나의 주된 과제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국민국가 단위의 삶의 방식과 地球村 상황에서 세계시민이라는 현실도 중첩되는 상황이다. 또 全地球的으로 위협이 되는 각종 문제들은 이제는 국민국가의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상황과 정도전 당시의 국가 창업의 상황과는 사실상 隔世感도 크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맥락과 부합하지 않는 면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도전의 업적을 근거로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동아시아인이 공공철학의 주제로 삼을 만한 것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첫째 共存의 倫理, 둘째 文明化의 과정, 셋째 유교의 가능성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공존의 윤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2000 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을 실현하는 일에 있어서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지나온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무의미한 일은 더더욱 아니다. 지금 비록 유럽 연합(EU)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 공동체의 추진에 회의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아시아의 근대사의 경험으로 본다면 이제는 국민국가 단위의 경쟁이나 대립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이나 일본이 각각 주도하려고 하고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에도 좀 더 많은 아시아의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서 공동으로 논의할 것이 많다. 지역 공동체 구성이란 상호 이질적인 문화적 사상적 맥락들이 만나서 이제 더 큰 공동의 맥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共存의 倫理를 확립하는 일이다. 공존의 윤리란 差異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정도전의 혁명과 실천이 현대 한국인들에게 暗黙知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의례적 실천 방식의 원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해하고 또 일본인이 한국인을 이해하는 일에 일단 정도전의 업적을 접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명화의 과정의 지속성이 필요하다. 문명화란 인간의 집단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공동 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질서의 준수와 이행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존의 윤리를 함께 실천해가는 것이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Norbert Elias)에 의하면 문명화의 과정이란 시빌리테(civility, 禮節)가 구성원의 의식 내지 무의식의 영역에 일정한 사유와 행위를 만들어내는 패턴(pattern)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다. 정도전은 단지 예절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유교의 이념으로부터 경전 그리고 법제와 예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규모의 유교를 향하는 문명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문명화의 과정이 현대 한국인의 心身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의 경우 전반적인 서구화 혹은 현대화의 과정에서 역문명화하는 현상도 늘어났다는 점이다. 일본 식민지, 좌우대립과 격돌, 6·25 事變, 산업화 과정, 등 현대사의 과정은 전통의 美風良俗을 상실해가는 과정인 듯하며, 그로 인하여 탐욕과 무절제가 경쟁과 불화를 부채질하면서 사회는 불신과 대립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하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날 정도전의 창업과 미래세계에 대한 도전, 특히 인본주의의 합리성에 입각한 의례적 장치와 실천의 계몽과 유도는 더욱 가치가 크게 느낀다. 일본에서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다.

셋째 유교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지난해(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을 강타한 쓰나미와 원전파괴로 인해 일본인이

겪은 극심한 고통은 전인류의 고통으로 감지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류가 자연재해와 문명재해로부터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낮추지 않기 위해서 人間의 安全保障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뻗속 깊이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의 안전보장이라는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의 한 축이 바로 人間開發이라고 한다.<sup>10</sup> 인간개발의 과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법과 실천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윤리와 도덕의 문제일 것이다. 만약 공존을 무시한다면 언젠가는 共滅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존의 윤리에 바탕을 둔 인간개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리고 정도전의 방식은 어떠한 지혜와 교훈을 시사하는가? 특히 오늘날에 정도전이 또 다른 개혁을 추구한다고 할 때에 여전히 유교(성리학)를 근본 이념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교를 오늘날에도 가치 있는 사상이나 문명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유교의 어떤 점이 그러한 것일까? 유교에는 불교에 대한 배척만 있고, 異端사상에 대한 포용과 공존의 논리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함께 토론해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 References

- Joseon Wangjo Silnok* 朝鮮王朝實錄 (*The Annals of Joseon Dynasty*). 1956. Seoul: Guk-sa-pyeon-chan-wi-won-hoi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Han Young-woo 韓永愚 著/한영우. 1983. *Jeong Do-jeon Sa-sang-eui-yeon-gu* 鄭道傳思想의 研究 (*Study on Jeong Do-jeon's Thoughts*). Seoul: Seoul-dae-chul-pan-bu, gae-jeong-pan.
- . 1999. *Wang-jo-eui Seol-gye-ja Jeong Do-jeon*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Jeong Do-jeon, Designer of Jo-Seon Dynasty*). Seoul: Ji-sik-san-eop-sa.
- Heo Jeon 許傳. 2013. *Seong-jae-seon-saeng-mun-jip* 性齋先生文集續編 (*Collection of Heo, Jeon's Works*). Seoul: Min-jok-mun-hwa-chu-jin-hoi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 Heo Kyeong 허경. 2011. “Michel Foucault-eui ‘Heteropia’—Cho-gi Gong-gan Gae-nyeon-e Dae-han Bi-pan-jeok Geom-to 미셸 푸코의 ‘헤테로피아’-초기 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On Michel Foucault's Hétérotopies – a Critical Introduction to His Early Concept of Space*).” *Do-si-in-mun-hak-yeon-gu* 도시인문학연구 (*The Humanistic Studies on City*) 3(2): 233–67.

<sup>10</sup> 高橋哲哉/山影進 編, 『人間の安全保障』, 東京大學出版會, 2008, 16 쪽 도표 참조.

Imamura Hitoshi, and Imamura Shinsuke 今村仁司, 今村真介. 2007. *Girai no ontogirii: ningen shiyakuwai wo saiseisan suru mono* 儀禮のオントロキ-: 人間社會を再生産するもの (*Ontology of Rituals: What Reproduces Human Society*). Tokyo: Godansha.

## Povzetek

Jeong Do-jeon (1342–1398) je eden izmed najbolj pomembnih oseb pri vzpostavitvi dinastije Joseon. Rodil se je v dinastiji Goryeo, kjer je živel do starosti 50 let, a se je skupaj z Yi Seong-gyejem, ki je bile eden izmed najvišjih admiralov v kraljestvu Goryeo, uprl proti kraljestvu in uspešno ustanovil novo dinastijo Joseon leta 1392. Čeprav štejejo Yi Seng-gye, ki je postal prvi kralj dinastije Joseon, za uradnega ustanovitelja te dinastije, pa številni sodobni zgodovinarji Jeong Do-jeona štejejo kot oblikovalca nove dinastije. Ta ocena prikazuje, da so številni korejski zgodovinarji razvili skupno idejo, da brez njegovega načrtovanja in izvajanja, dinastija Joseon ne bi bila ustanovljena in tudi ne bi trajala 500 let. Med ključne točke, s katerimi sodobni zgodovinarji ocenjujejo njegove dosežke, niso samo realizacija revolucije, ampak tudi njegovi prispevki, ki so bili nepogrešljivi za ohranjenje in razvoj dinastije.

Sodobni zgodovinarji se osredotočajo na njegovo sistematično oblikovanje institucij zakonov, ekonomije in politike, ki so tudi glavne teme sodobnih družboslovnih znanosti. Vendar pa ni dovolj, da bi samo ocenjevali njegov pomemben prispevek za ohranjanje dinastije skoraj 500 let. Ta članek posveča tudi pozornost vlogi nacije, ki disciplinira svoje ljudi, kot pravi Michel Foucault. Ideološka in institucionalna oprema dinastije Joseon ustreza discipline, s tem na primer, da je ukinil budistične rituale in jih nadomestil s konfucianskimi, organiziral je glavno mesto in poimenoval stavbe in ulice po konfucianskih klasikih, izključil je budizem iz življenj ljudi in uradnikov ter iz kraljevih obredov itd., nas vsi njegovi prispevki opozarjajo na njegovo pomembno vlogo pri ohranjanju dinastije, in sicer za neprekinjeno reprodukcijo konfucijske družbe od 14. do 20. stoletja.

Ta prispevek se osredotoča na uporabo njegovih pomembnih prispevkov za diskusijo v filozofiji za javnost, še posebej z japonskimi filozofi.

## Summary

Jeong Do-jeon (1342–1398) is regarded as the most substantial figure of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Dynasty. He was born in the Goryeo Dynasty and had spent his life in the Dynasty until 50 years old, but he, with Yi Seong-gye who used to be one of the highest admirals in the Goryeo Dynasty, revolted against the Dynasty and finally succeeded in foundation a new dynasty, Joseon, in the year of 1392. Even though Yi Seong-gye who became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has officially been regarded as the founder of the Joseon Dynasty, Jeong Do-jeon is regarded as a designer of the new Dynasty by most present Korean historians. This estimation shows that many Korean historians have developed the common idea that without his planning and practice the Joseon Dynasty could not be established and, admitting that it was, continued for 500 hundred years. The key-points that present historians highly estimated his achievement are not only his realization of revolution but also after then his contributions which were indispensable for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Dynasty.

The present historians' estimation focused on his systemic design of institutions of law, economy, politics, and so on, which are the topics of mainstream social sciences. However, such estimation it is not enough to evaluate his substantial contribution for maintenance of the Dynasty for almost 500 years. In this paper a nation's function to discipline its people as Michel Foucault said is paid attention to.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equipment of Joseon Kingdom fits the discipline, for example, abolishing Buddhist rituals and providing Confucian ones, organizing the capital city and naming buildings and districts of the city according to Confucian humanities, excluding Buddhism from people's routine lives and official or royal ceremonies, etc., all of his contributions direct our attention to his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maintenance of the Dynasty, that is, the continuous reproduction of the Confucian society from the 14<sup>th</sup> through the 20<sup>th</sup> century.

This paper focuses on application of his substantial contribution for discussion of public philosophy especially with Japanese scholars.